

영산재등 불교무형자산 세계문화유산 지정 길 열려

신청목록 제조정등 준비 서둘러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채택

영산재를 비롯한 불교무형자산도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10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끝난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이 채택됐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23일 한국을 비롯한 필리핀, 덴마크, 아르헨티나 등 다수 국가의 찬성으로 협약이 채택됐으며, 향후 각 국가의 비준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국제협약은 인류의 문화다양성과 지역 문화 정체성

의 정수로서 그 가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 협약은 △개별국가차원의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 △국제적 차원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작성 및 긴급보호를 요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 △국제협력과 원조 △이를 위한 기금구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협약 비준 시 해당국가 가 기금마련을 위한 분담금 조항을 거부할 수 있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재정마련에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유네스코 관계자는 2006년까지는 현재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자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형유산결자'에는 한국의 종묘제례악을 비롯한 19개의 무형유산이 2001년 1차 '결자'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있을 2차 선정에 한국은 '판소리'를 신청해 둔 상태다.

문화재청 문화재정보과 관계자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발효되면 잠정 신청 목록을 제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교의 영산재도 관련 단체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질 경우 선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코앞에 다가온 수능시험



수능 고득점 발원기도를 마친 학생들이 발원나무 숫자판에 숫자를 추가하고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 '발소리가 공부에 방해되지 않겠지?' 하는 걱정에 까치발을 들고 조심스레 법당을 찾은 아이들. 수험생인 선배들을 위해 1,2학년 후배들이 10만 배 릴레이 기도정진을 하는 동대부속고등학교(교장 한성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풍경이다. 108배나 3000천배의 거창한(?) 정진은 아니지만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며 하는 한배 한배가 선배들의 힘든 수험생활에 힘이 되리라고 믿는단다.

수능 100일을 앞두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과 전교생이 한 마음으로 시작한 '십만 배 릴레이 정진 기도 프로그램'이 벌써 종착점에 도달해간다. 후배들의 기특한 마음이 학부모들의 동참으로 이어져 숫자판

“선배님 힘내세요!”

동대부고 1,2학년 후배 재학생들 점심시간 쪼개 10만배 릴레이 기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동안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간이 날 때마다 법당을 찾는 거예요.” 그 마음뿐이 쉽지 않은 법당 발원 아니라는 듯 수줍게 웃으며 얘기하는 강두비 학생. 옆에 있던 김현용 학생도 한 마디 돕는다. “저 같은 경우에는 누나가 고3이라 그런지 절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수능 100일을 앞두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과 전교생이 한 마음으로 시작한 '십만 배 릴레이 정진 기도 프로그램'이 벌써 종착점에 도달해간다. 후배들의 기특한 마음이 학부모들의 동참으로 이어져 숫자판

은 당초 목표였던 십만을 넘어 175,088을 가리키고 있었다. “옆에 있는 나무는 발원나무예요.” 어느새 황제문 학생이 다가와 말을 건넸다.

“보리수일사구 모양의 종이에다 각자 발원을 적어 달아, 함께 키우는 나무예요.” (최창걸)

몇 시간의 시험으로 실력을 평가 받아야 하는 수험생들. 그 평가는 때론 가혹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꿈을 짓밟기도 한다. 그러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이 지속된다면 우리 고3수험생들은 수능 뿐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정말 멋지게 파이팅! 할 수 있지 않을까.

김은경 기자

'평화건설' 주제로 토론 막사이사이상 수상자

수상자간의 활동 분야를 공유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13회 막사이사이 수상자 회의가 10월 23-25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렸다. 23일에는 마더 시바, 마이클 링도,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이 각각의 사업과 활동 분야를 토대로 해 '평화건설'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24일에는 거제도에 있는 애광원을 견학하고, 25일에는 경주 불국사, 석굴암을 참배했다.

남동우 기자



회의에서 법륜스님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정토회

도굴된 불상으로 전시회까지

도굴범등 일당 구속, 문화재 6점 회수

도굴된 보물급 불상으로 전시회까지 이어 대담한 도굴범이 잡혔다. 서울지검 형사7부(최교일 부장검사)는 10월 24일 자기 소유 토지에 있던 보물급 불상을 절취해 팔아넘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최 모(57)씨와 유통을 알선한 공범 문 모씨(40)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절취한 불상 등을 구입해 전시회 개최 담당자들에게 거액에 팔아달라고 의뢰한 화랑운영자 오 모(40)씨를 갈

은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되려던 문화재 6점을 압수했다. 이번에 도굴된 불상등 문화재 6점은 오 모씨의 의뢰로 인사동 'ㅇ' 갤러리에서 10월 16일부터 전시됐다. 오유진 기자

거리 노숙자 지원단체

'홀리스의 친구들' 발족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사단법인 단체인 이웃을 돕는 사람들 산

하에 노숙자 지원 단체가 발족했다. '홀리스의 친구들(운영위원장 윤여진)'은 10월 17일 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노숙자 문제 홍보 전개 △노숙자 복지 제도화 의제활동 추진 △불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연대 △

소수자 불교포럼 개최 등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또 노숙자 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노숙자 이미지 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등 세부 프로그램 개발을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강,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런 나눔콜택시
1588-5532

서울 봉은사생협-횡성군 농민회 불교계 최초 도농공동체 결연

수입농산물 개방에 맞서 도심 생활 생협과 지역 농민회가 상생과 연대의 틀을 만든다.

서울 봉은사 생협과 강원도 횡성군농민회 내 환경농업위원회는 10월 26일 봉은사에서 '도·농 공동체 결연식'을 했다. 도시인들의 건강한 먹을거리 확보와 생산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도·농 공동체 결연식은 선혜심 봉은사 생협 부장과 정

의택 횡성군 농민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의 협정서 낭독, 서명 및 교환으로 이뤄졌다. 이정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처장은 "결연식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비롯해 제2의 고향 갖기 운동 등 지속적인 연결 매개체를 찾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11월 15일 남원 실상사에서 지리산천일기도 회향 천도제 및 지리산생명평화결사 창립식이 개최된다. 남동우 기자

천은사, 범종 도난

구례 천은사(주지 종권)가 소장하고 있던 조선 후기 범종이 도난당했다. 도난당한 범종은 가로 44.5cm×세로 66cm 크기로 명문(銘文)에 제작시기가 1778년으로 기록돼 있는 지방 문화재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10월 14일 새벽 3시경 한 스님이 새벽 예불 참석차 법당을 지나며 요사채인 회소당 마루에 있던 범종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당일 오후 2시경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는 현지조사 실시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오유진 기자

기부금영수증과 종교

목탁소리

남동우 (취재1부 기자)



사찰에서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줬을 뿐 아니라 돈을 받고 팔기도 했다는 보도가 공중과 방송을 통해 전해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KBS는 10월 20일 뉴스를 통해 "허위나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다 검찰에 적발된 사찰이 울산, 양산에서만 24곳에 이른다"면서 "내지도 않은 기부금 규모는 200억원대에 포괄한 세금만 30억"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사찰은 한 장에 5만원 정도의 돈을 받았

다"며 "검찰은 주지 11명을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23일 사과 논평을 통해 "깊은 반성과 함께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찰 책임자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분말사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세심한 지침시달과 교육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에서 분말사에 시달한 지침을 보면 △비영리단체 고

유번호를 발급받을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후약방문일지라도 조계종의 이번 조치는 환영할만하다. 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종교단체들의 기부금과 관련한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종교단체들이 조직관리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우리 자신부터 돌아볼 일이다.

현대설법

설법이 살면 법회가 살고, 법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있으신가요! 신도 조직에 활력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포교 활동이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수행·정진만 있고 법회가 없습니까?
법회는 있는데 설법이 없습니까?

- 반드시 경전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 자유자재로 응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 같은 내용이 겹치지 않습니다
- 누구나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활자 크기
- 1편의 분량은 약 25분 소요
- 1편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섯 가지 이상 수록
- 1편씩 따로 떼어낼 수 있음

◆ 백중 49일 기도, 초하루, 보름, 지장, 관음, 명절, 방생, 영기천도, 일요법회, 수련 법회, 특별행사, 교도소, 경찰서, 거시림회, 보살회 법문, 가족법회



설법은 딱딱한 지식 전달이나 가벼운 재담이 아닙니다. 경험담이나 개인 생각도 아닙니다.

설법은 재미없는 사설이나 논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설법은 헌공과 찬탄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획된 감동입니다.

★ 설법준비 염려없습니다 ★

현대설법연구소 (031) 968-6663

경기도 고양시 화정달빛 401

안내책자발송중!